

# 소통과 불통



김민 소장의  
당당평평

언제부터인가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적잖이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의미일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사람 간의 소통, 비즈니스 관계의 소통,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소통 등 결국 인생의 성공여부와 인간사의 시종(始終)은 소통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면적 인식만 있을 뿐 정확한 그 뜻과 의미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기도 하다. 상대에게 일반적으로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만을 인식시키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강요'일 뿐이고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불통'이다.

특정 아이템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상대에게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랑과 특징만 얘기하는 것은 영업을 하는 신입사원들에게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당연히 판매율과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 즉 고객의 입장에서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보더라도 자신이 그 제품을 구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일 뿐이다. 상대

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해 상대로 하여금 그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어필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면 그럴싸한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성사될 것이다.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가 자신이 그 지역에 왜 필요한 일꾼인지에 대한 자신의 경쟁력과 정체성 및 분명한 설득도 없이 자신이 속한 정당과 유력정치인과의 친분 및 기획된 사진만을 내보이며 선거에 출마하니 당연히 낙선할 수밖에 없다. 정치판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이 그렇게 선거에 임하지 않나. 이런 광경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하고 있다.

소통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소통이란 말을 잘하거나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통과 강요의 차이는 여기서 나뉘게 된다. 말주변이 없어도 내가 구태여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대한 경계심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나를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다. 더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이다. 이 단순한 논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런 작은 의식의 전환이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심심찮게 나누는 몇 가지 인사말이 있다. "언제 시 간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언제 한번 연

락할까요" 등의 말은 영혼이라고는 1도 없는 소리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언젠가는 과연 언제인가. 토끼 머리에 빨날 때쯤 에나 지겨질 약속 아닌가. 말에 대한 책임도 기약도 없는 그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일 뿐이다. 필자는 가끔씩 이런 식의 멘트는 삼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한다. 대신에 "다음 주에 시간이 좀 관찮는데 화요일 점심과 금요일 저녁 중 어느 때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다. 아니라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고 한다. 이것이 더 진솔하고 깔끔하지 않은가.

어른이 젊은이에게 자신의 인생과 흔적을 하는 것도 상대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잔소리에 불과하다. 명함까지 교환한 사이임에도 상대의 호칭을 정확히 불러주는 작은 배려조차 없는 것도 소통의 부재이다. "내가 말이 좀 많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목회자들이 직업상 말이 좀 많으니 이해하세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실수하는 경우다. 소통의 부재와 목회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줄 수 있다. 모든 것이 '소통'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소통'이라는 간단하고 흔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통'과 '불통'의 경계는 한 끝 차이이다. 진정한 '소통'에 대한 고민과 실제적인 노력이 없는 한 우리가 가지는 인간관계와 인격은 모든 것이 허상이 고 거짓에 불과하다. /태일리플러 정치연구소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중금융감독기구 부주석 등 면담  
금용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북경시 등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장은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면담이다. 금융감독기관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



LH 임직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점검  
15일 LH에 따르면 박상우 LH사장 등 임직원 150명은 지난 13일 청주 문화산업단지(옛 연초제조장)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도시재생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뉴딜사업지와 올해 공모 신청한 뉴딜사업 추진현황, 지역별 특화재생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뉴딜사업을 진단했다. /LH

## 한은, 2018 하계 어린이박물관교실 개최

화폐박물관 견학·경제 강좌 등 진행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회(1일과정)에 걸쳐 '2018년 하계 어린이박물관교실'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하계 어린이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 및 체험 강좌, 나만의 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없다. 단 사회배려계층 어린이가 신청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한다. /사유리 기자 yul115@

## 삼성바이오, 저가매수 기회?



기지 수첩  
손엄지  
(파이낸스&마켓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주식매수권(콜옵션) 가능성을 공시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 변경에 대한 '회계부정' 판단을 유보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로 보고 있다. 더욱이 가장 우려했던 '상장폐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퍼지면서 다음날인 14

일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대거 순매수(5393억원)했다. 같은 날 외국인이 순매도(7458억원)한 물량을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방식이 여기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투자 격언과 달리 개인들은 뉴스에 사고, 물리는 방식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개인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더욱 맥을 못춘다. 본격 조정장세가 시작된 6월 이후 이달 9일까지 개인이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5.4%였다. 하락장 속 '개미 필패(必敗)'가 또 다시 증명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의주

시하고 있는 기자들도 사건의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증선위의 이번 결론에 대해 "신중을 가장한 책임회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로 장기적인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증선위의 결과 발표 후 있을 단기적 반등을 기대해 주식을 사들이는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회계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주가는 '저가매수' 기회라고 보기도 어렵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8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262배 수준으로 업종 평균 PER인 64.04배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sonumji301@metroseoul.co.kr

###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장관실 장관 비서관 윤성혁 △ 철강화학과정 최진혁
- ◆통일부 ◇ 과장급 전보 △ 통일교육원 사회통일 교육과정 업무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교육기획과장 이병원 △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 최형주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b>metr 메트로미디어</b>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9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92호

이중규 △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장 홍정익 △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장 김우중 △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장 김유미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장 이상원 △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최종희

◆교육부 △ 목포대 사무국장 최승복 △ 디지털소통팀장 정승화 △ 교육부(국외협력 파견) 하진혜 △ 명예퇴직 이정문 △ 감사관실 이광재 △ 교육부(후직) 조영석 △ 교육부(국외협력 파견) 성미정 △ 학생지원국 파견 김기빈

◆병무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기획조정관 임재하 △ 병역지원국장 장현서 ◇ 과장급 승진임용 △ 대법인 최정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과장급 전보 △ 생활방사선안전과장 채희연 △ 원자력조사과장 김상현 △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배종근

◆산림청 ◇ 서기관 △ 국유림경영과장 강대식 ◇ 기술서기관 △ 법무감사담당관 권영록 △ 중부지방산림청장 김종연 ◇ 임업연구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권오웅

◆한국중부발전 ◇ 1직급(을) 승격 예정자 △ 기획전략처 문화홍보부장 강성중 △ 발전환경처 발전

운영실장 안성규 △ 건설사업처 건설기획실장 이웅천 △ 안전품질처 재난대책부장 문홍서 △ 신성장사업단 신재생사업처 신재생총괄부장 문상우 △ 국정과제추진실 부장 김동준 △ 보령발전본부 기술지원처 연료설비부장 심은구 △ 보령발전본부 제1발전소 화학기술부장 정재경 △ 보령발전본부 제3발전소 제어기술부장 서대석 △ 보령발전본부 복합발전소 전기기술부장 임철규 △ 서울건설본부 서울복합건설소 계전부장 한필수 △ 서천건설본부 경영기획부장 여창규

### 부음

▲서울교전 국회의원)씨 별세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10시 30분.  
▲김용태(전 금천초등학교 교사)씨 별세, 김석중(현대해상 전무·자산운용부부장)·김형중·김철중(HB테크놀로지 부장)씨 부친상, 최정수(전 한국은행 국장)·김공식(문경시청)씨 장인상, 김선준(산업은행 대리)씨 조부상 = 13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2-3010-2000



롯데홈쇼핑, 초복맞아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북경시 등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장은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면담이다. 금융감독기관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롯데홈쇼핑



홈플러스,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와 유엔환경계획(UNEP)한국협회와 함께 주최한 '2018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에서 내빈들이 수상작을 보고 있다. /홈플러스